2022년 사순 시기 묵상집

돌아섬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여는 글

파스카 신비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 자비의 체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쳐"(갈라 2,20)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벗끼리 나누는 허심탄회한 대화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순 시기에 바치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을 꿰뚫고 무디어진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어 우리가 더더욱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뜻으로 돌아서게 해 주는 기도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호세 2,16 참조)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 목소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이, 더욱 기꺼이 되울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2022년 사순 시기 묵상집

돌아섬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짜임

03 묵상 시 1

04 복음 묵상

44 묵상 시 2

45 복음 묵상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후원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사순 시기 묵상집『돌아섬』을 엮었습니다.
『돌아섬』과 함께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표지 사진: 남재현 티모테오 신부(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말씀 길라잡이: 황석모 요한 신부(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동티모르 선교)

평화의 기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재의 수요일

3 / 2

요엘 2,12-18 / 2코린 5,20-6,2 / 마태 6,1-6.16-18.

말씀 길라잡이

은총의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은 믿는 이들에게 회개와 보속의 삶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재를 바르는 행위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보속하는 행위로 다시금 자신이 창조된 존재임을 상기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하느님 손에 달려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나약한 인간의 삶이 매일 매 순간 회개와 보속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요청입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요엘 예언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합니다. 절망에 허우적대기보다는 희망으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사람들에게 화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때에 성찰과 회심 그리고 보속의 삶을 통해 먼저 하느님과 화해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신앙인들에게 시기와 증오가 만연한 곳에서 화해의 도구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산 제물이 되어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올바른 자선, 올바른 기도, 올바른 단식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자선은 누군가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삶입니다. 결코 위선자들처럼 누군가를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돌보는 삶입니다. 즉 따뜻한 관심이 있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지기를 간절히 청하는 이의 삶이며, 죄로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의 삶입니다. 그리고 찬미와 찬양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단식은 사사로운 욕심으로 가득 찬 자신을 비우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정의를 앞세우고 회개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이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향과 열정이 없는 단식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위로받기 좋아하며, 유혹과 타협하고 왜곡된 것을 정당화합니다.

은총의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회개와 보속의 삶을 잘 준비하고 부활의 신비를 확인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자비하심을 청합시다.

머무름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3 / 3

신명 30,15-20 / 루카 9,22-25.

말씀 길라잡이

오늘 독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생명과 행복을 선택하겠지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에 이 선택은 늘 도전적입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있고, 많은 경우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처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목적 없는 떠남'이 아닌 '목적 있는 따름'을 통해 생명과 행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따름에 있어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즉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먼저 자신을 버리라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절실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실함이 적으면 믿음은 필연적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선택적인 것이 되었을 때, 옳은 길에서의 이탈과 배신은 정당화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삶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와도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러운 도구를 따름의 조건으로 제시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기꺼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수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름의 길에 들어선 이는 하느님의 뜻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따름에 있어 십자가는 충실성을 가늠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인간의 나약한 한계 때문에 버릴 수 없었던 익숙한 생존 법칙과 나쁜 습관의 찌꺼기들이 십자가를 통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채워졌을 때 따름은 선포로 완성됩니다.

머무름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3 / 4

이사 58,1-9ㄴ / 마태 9,14-15.

말씀 길라잡이

오늘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참된 단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 주고 멍에 줄을 끌러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식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단식의 선한 동기와 과정과 그 결과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이사야 예언자는 전합니다. 참된 단식은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랑의 행위야말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합니다. 형식적인 단식은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복음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영적 갈증이 있는 이들이지만,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참된 단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은 묻습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단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형식에 갇혀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비교의 대상을 찾고,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왜곡된 우월감은 이웃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우월감의 무기는 단죄와 심판입니다. 용서와 화해로 기쁨을 공유하기보다는 단죄함으로써 편을 가르고, 일치보다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단식은 누구를 단죄하거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동기로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머무름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3 / 5

이사 58,9ㄷ-14 / 루카 5,27ㄴ-32.

말씀 길라잡이

오늘 독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서의 문장은 조건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한다면 너희들을 흡족하게 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길을 따르지 않고 있기에 나는 너희를 단죄한다'라는 심판자이신 하느님보다는 '너희가 돌아선다면 나는 다시 너희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자비하신 하느님을 강조합니다. 이렇듯 이사야 예언자는 나쁜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적하면서도 희망을 제시합니다. 죄 때문에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리와 다른 사람의 무리들을 죄인이라 일컫습니다.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들에게 개선하려는 원의가 있음에도 죄인이라는 선입견으로 묶어버리고 단죄하여 기회를 박탈한다면 과연 죄인들은 누구에게서, 또 어디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려는 원의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원의를 일으켜주기 위해 함께하십니다. 그들을 추궁하고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크나큰 지지와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구석에서 덧없이 쓸쓸하게 끝날 한 무기력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끌어내줍니다. 이제 이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재건할 힘을 얻습니다. 함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동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며 기회를 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머무름

사순 제1주일

3 / 6

신명 26,4-10 / 로마 10,8-13 / 루카 4,1-13.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광야와 유혹입니다. 성경 안에서 광야는 하느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장소이고, 정화와 회개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시련을 이겨내고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 또한 시련과 유혹을 겪으시며 당신 사명의 확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경험하는 유혹은 세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신가? 또,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탄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관한 물음으로, 수난과 십자가상의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두려움을 통해 의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자비심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응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복음은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라고 마무리합니다.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것은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마에게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유혹이 가장 극심한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상생활에서 유혹이 가장 극심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인간적으로 의지가 가장 약했던 수난과 십자가상의 죽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악마에게 유혹에 대한 결정적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이들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고백과 보속의 삶을 통하여 악마에게 실패를 안겨주어야 합니다.

머무름

사순 제1주간
월요일

3 / 7

레위 19,1-2.11-18 / 마태 25,31-46.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은 마지막 날 당신의 재림 때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일, 곧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심판이 있기까지 충분한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웃의 처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사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독서에서 주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결코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위선도 과장도 시적 표현도 아닌, 이웃을 진정으로 위하며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기에, 이들 마음에는 언제나 선한 지향이 가득합니다. 이 선한 지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곳으로 이끕니다. 이웃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환대와 돌봄의 애덕적 행위야말로 주님이 준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조건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웃의 처지'를 외면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은 자신에게 올 심판의 날을 깊이 묵상하며 깨어있는 자세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나요? 지금 나의 이웃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있나요? 나의 이웃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선한 지향은 있을까요? 그 선한 지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내 이웃의 처지를 알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선한 지향을 드러내야 합니다.

머무름

사순 제1주간
화요일

3 / 8

이사 55,10-11 / 마태 6,7-15.

말씀 길라잡이

기도하지 않는 수도자, 기도하지 않는 사제, 기도하지 않는 믿는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디에서 하느님을 만날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던 시절에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만납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내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주님의 기도)를 통해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는 이의 태도에 관하여 언급하십니다. 즉 위선적인 태도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간절한 지향이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의 기도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고백이기에 언제나 은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의 존재와 거룩함, 하느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청하라고 하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거룩함, 하느님의 뜻은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실까요? 우리 존재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왔고, 어디로 흘러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원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상 안에서 필요한 삶의 기본적인 요구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유혹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에게 있어 결코 꺼지지 말아야 할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네 삶은 바람과 뉘우침, 찬미와 감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숨결같은 것이며, 신앙인으로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기도는 결코 신앙인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머무름

사순 제1주간
수요일

3 / 9

요나 3,1-10 / 루카 11,29-32.

말씀 길라잡이

오늘 독서에서 요나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간절한 마음에 참회의 행위로 응답할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리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간절한 마음, 하느님의 자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기회의 삶을 내어놓고,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예수님께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악한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통해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대가 악하다고 규정하실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의 눈초리와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대에 대한 꾸짖음이자 경고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 해도 이를 믿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시적인 눈요깃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들이 회개하여 따름의 여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하느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들 마음에는 왜 이런 불신이 있을까요? 직접 듣고 보았으며, 기적의 수혜자인 그들이 왜 참회가 아닌 보다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태도로 하느님을 시험할까요? '하느님은 그래야만 한다'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비심보다 하느님의 위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엄으로 죄인들을 심판하기보다,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대에게 참회의 울부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머무름

사순 제1주간
목요일

3 / 10

에스 4,17ⓗ.17ⓘ-17ⓛ.17ⓝ-17ⓟ / 마태 7,7-12.

말씀 길라잡이

유성이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성은 찰나에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찰나라는 극히 짧은 시간에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유성이 떨어지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안다고 해도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그 순간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문득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 주실 것이다. … 얻을 것이다. … 열릴 것이다."라는 약속의 응답 내용에서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 지금 청하여라! 지금 찾아라! 바로 지금 문을 두드려라! 라고 답합니다. 지금 행동으로 드러낼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저 그런,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하는 간절한 기도의 지향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청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의 지혜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분별의 능력이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스럽게 두드리는 희생을 멈추지 말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삶이 무미건조하더라도 이 간절한 기도의 지향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머무름

사순 제1주간
금요일

3 / 11

에제 18,21-28 / 마태 5,20ㄴ-26.

말씀 길라잡이

요즘 뉴스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특별한 동기 없이 가족과 이웃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을 자주 봅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 멸시와 매도의 화살이 어디로 치닫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노와 멸시, 매도는 살인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을 능가해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넘어 민감한 내적 반응들에 깨어있어야 하며 이를 경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원한, 형제나 이웃을 멸시하는 교만함, 형제를 죄인 취급하는 행위들은 살인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성을 내는 자는 재판에 넘겨지고, 형제에게 바보(멸시를 칭함)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죄인 취급)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싫어하는 분노와 교만함 그리고 형제들을 죄인 취급하는 대신, 사랑의 덕을 드러내야 함을 가르칩니다. 반감이나 원한은 즉시 버려야 하며 서로가 이해로 연결되어있음을 사랑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통해 내적 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서 뉘우침을 통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뉘우침의 삶, 이것은 변화의 삶입니다. 변화의 삶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회개한 자의 과거가 아닌, 지금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간 사랑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후에 변질되었다면, 과거의 삶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무름

사순 제1주간
토요일

3 / 12

신명 26,16-19 / 마태 5,43-48.

말씀 길라잡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저희 또한 하느님을 닮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랑이 아닌,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은혜이지 어떤 요구나 조건, 대가 따위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로의 온전한 의탁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인간이기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을 닮은 자녀답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복음은 하느님의 자녀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외아드님을 파견하신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없애고 장점을 개발하는 데에만 삶을 투자하고, 완벽함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놓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닫는 삶'을 추구한다면, 완전한 사람은 '열어 놓는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와 박해자들을 단죄하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일에 협조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일은 모든 이를 살려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머무름

창세15,5-12.17-18 / 필리3,17-4,1 / 루카 9,28ㄴ-36.

말씀 길라잡이

거룩한 변모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목적은 수난의 예언을 듣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니에서 공포와 번민에 휩싸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룩한 변모 사건과 겟세마니에서의 기도 장면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둘째, 함께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셋째, 제자들이 목격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넷째,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변모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고, 겟세마니에서는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따름'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른 장면이 있다면, 거룩한 변모에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움에 감도되어 계속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만 겟세마니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온 유다와 이방인 지역을 오가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지칠 때면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당신의 수난과 죽음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사라집니까?

이것은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모든 백성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느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비 중에 사라진 것은,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잠에 취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 사건의 중대함에 비해 그들의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영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을 현재의 피곤함에 내어 맡깁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상황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이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들이 이 신비로움에 잠시나마 동참했다는 사실은 은총입니다. 이 은총의 순간은 제자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은총의 시간에 영원히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 따름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름에 있어 이것만큼 큰 위안의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거룩한 변모 사건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서 희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믿는 이들 모두에게도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머무름

사순 제2주간
월요일

3 / 14

다니 9,4ㄴ-10 / 루카 6,36-38.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은 첫 소절부터 권고가 아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삶의 방식은 이웃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기 위한’ 삶은 언제나 이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수행이 따르며, 그 수행은 선행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비심을 강조할까요? 자비심이 있다면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심을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 남을 단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아버지와 연관시키며,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자녀로 끌어올립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은 권고가 아닌 명령이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자비는 크나큰 위안입니다.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 즉 자녀들은 자신의 이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용서함으로써 기회를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아버지께 청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워하는 마음부터 없애야 합니다. 미움이 생명을 죽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비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증오와 파괴만이 자리합니다.

머무름

사순 제2주간
화요일

3 / 15

이사 1,10.16-20 / 마태 23,1-12.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닮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귀 기울여도,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침과는 달리 거짓된 선, 위선적인 삶에 가깝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적인 삶을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백성을 염려하는 배려심도, 백성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도 없이 온통 허세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질책하십니다. 한마디로 공적으로는 선행을 베푸는 척하면서 뒤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 앞에서는 사려 깊은 척 굉장히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웃고 다니는 등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품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이중인격자입니다. 평소에는 남의 불행에 관심조차 없다가도 자신을 드러낼 기회만 생기면 보여주기식의 분노나 애도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지당함에도, 불필요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호의를 불러일으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 결코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율법의 가르침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은 결코 특정한 이들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겸손한 태도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충실함은 예수님을 따름과 본받음으로 드러납니다.

머무름

사순 제2주간
수요일

3 / 16

예레 18,18-20 / 마태 20,17-28.

말씀 길라잡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려는 듯 다시금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들뜬 마음을 아시고는 끝까지 당신을 섬기고 따를 것을 주문하십니다. 이 수난 복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과 같이 괴로움 끝에 부활의 영광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을 연결하실까요? 이는 당시 유다인들이 가졌던 현세적 메시아니즘(영광스럽게 오신다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통받고 수치를 당하는 메시아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려는 예방책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으며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유다인들처럼 현세적 메시아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난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고에서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마태 16,22).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마태 16,23)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마태 17,23 참조). 그러나 세 번째 예고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침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현세적 메시아니즘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를 마음속 깊이 감추어둡니다.

복음은 제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어줍니다. 그 마음은 기대감입니다. 출세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기대감 때문에 분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명예에 대한 죄의 근원을 겸손으로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출세의 기대가 아닌, 따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많은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을 당신의 부활 예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머무름

사순 제2주간
목요일

3 / 17

예레 17,5-10 / 루카 16,19-31.

말씀 길라잡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시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과 배려, 나눔의 중요성입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는 라자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눔을 실천하기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재산을 모두 허비합니다. 관심과 배려, 나눔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무관심과 낭비의 삶으로 불의를 저지르고, 타인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회피합니다. 라자로는 부자의 쾌락적인 생활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삶을 연명합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내세에서 역전됩니다. 라자로는 죽어서 왜 아브라함의 곁에 있을까요? 그의 삶이 비참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거지라서가 아니라, 부자의 쾌락적인 식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받아먹으면서도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죽어서 저승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현세에서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데에 인색했던 삶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이웃의 처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 나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부자와 다섯 형제들이 정의를 세우고 선행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마다한 데에 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들은 선한 마음가짐과 나눔으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 가르침을 압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절제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머무름

사순 제2주간
금요일

3 / 18

창세 37,3-4.12-13ㄷ.17ㄹ-28 / 마태 21,33-43.45-46.

말씀 길라잡이

심리학자 살로빈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질투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질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투는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며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질투의 불꽃이 더욱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 탐욕은 오늘 독서와 복음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독서인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늘그막에 얻은 요셉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사랑받는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출렁거립니다.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열등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모든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등감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인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탐욕에 관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포도밭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작인은 하느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들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신뢰했기에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의를 저버렸으며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누구보다 메시아를 맞아들여야 할 그들이 왜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을까요? 소작인들의 마음은 왜 이토록 악하게 되었을까요? 탐욕이 그들의 선한 마음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며 늘 깨어있어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욕심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으며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에 하느님의 법을 멋대로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탐욕은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앗아갑니다.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 늘 사랑함으로써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내려놓음으로써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무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3 / 19

2사무 7,4-5ㄴ.12-14ㄱ.16 / 로마 4,13.16-18.22 / 마태 1,16.18-21.24ㄱ.

말씀 길라잡이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서 요셉 성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그에 관해 아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는 다윗의 후손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과 목수이며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양아버지라는 사실이 고작입니다. 이 외에는 철저히 감추어진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요셉 성인에 관한 수식어를 통해서만 그의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족보 이야기를 통해, 요셉 성인은 준비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선택에 따라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요셉 성인의 수락이 수반되어야 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또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는 법에 충실한 사람이라기보다 관계에 충실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충실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만약 요셉이 법에만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를 율법에 따라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요셉의 의로움은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충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의 의로움은 믿음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독서인 로마서에서는 이 사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구원이 무언가를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길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요셉이라는 표현은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요 예수님의 양아버지라는 사실은 구원사 안에서 그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보호자는 결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철저하게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충실한 존재여야 합니다. 요셉은 이 충실함으로 구원사 안에서 자신의 몫을 해낸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삶인지 요셉 성인을 통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요셉 성인을 모델삼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머무름

사순 제3주일

3 / 20

탈출 3,1-8ㄱㄷ.13-15 / 1코린 10,1-6.10-12 / 루카 13,1-9.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정의의 벌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은 회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에 의해 희생된 이들과 실로암 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불운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불운은 죽은 자들에게 내려진 책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 옛 악습에서 벗어나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이름으로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도, 계약도,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로부터 하느님께로 인도되었고, 계약을 통해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빗대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즉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와 성사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가요? 성사적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나요?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친교의 삶으로 거듭나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주의에 빠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불편함과 고달픈 생활이 싫어 불평하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흘려보냈듯이, 우리도 그렇게 회개와 정화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현세에서 주어진 매 순간의 삶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삶이며 변화되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에 속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찰나의 시간이기에 회개의 삶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와 미래는 연결됩니다.

머무름

사순 제3주간
월요일

3 / 21

2열왕 5,1-15ㄷ / 루카 4,24ㄴ-30.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그들의 관심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호기심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몰이해를 깨우쳐주고자 하십니다.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의 처지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간절하지만 희망보다 절망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환대로써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만 신뢰했다면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열망과 겸손이 있었기에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사렙다 여인이 처한 상황은 어쩌면 나아만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색함이 아닌 베풂을 통해 하느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겸손한 삶의 태도와 따뜻한 마음은 절망에서 희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는 아집과 편견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희망보다는 절망 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불신에 가득 찬 구경꾼 같은 삶의 태도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했다', '그럴 거야', '그래야만 한다'라는 경험과 추측, 인정받고자 하는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열려있는 태도와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이를 대할 때 단정하는 습관이나 특권 의식은 없었는지 살펴봅시다.

머무름

사순 제3주간
화요일

3 / 22

다니 3,25.34-43 / 마태 18,21-35.

말씀 길라잡이

오늘 독서에서 다니엘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선택한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당신께 아무것도 바칠 것 없는 가련한 백성이지만 이 백성의 겸손함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를 것임을 고백하고, 매사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신과 마주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무조건 하느님께 의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해서 여쭙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를 가르칩니다. 한 번의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주는 완전한 용서를 말입니다.

완전한 용서란 관대함이라는 자비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관대함은 일회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주님의 주문은 관대함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인 동시에, 탐욕 때문에 인색함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이가 모든 것을 탕감받았는데도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 다시 죄인의 신세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자비의 관대함이 있었다면, 그는 무자비함과 인색함이 아니라 관대함으로 자신의 이웃을 맞이하고 한 형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 때문에, 용서받은 자의 삶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죄인의 신세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다니엘 예언자의 기도처럼 겸손히 자비를 구하려면 그의 고백은 진정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약속을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상대를 용서해 줌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불러왔어야 했습니다.

머무름

사순 제3주간
수요일

3 / 23

신명 4,1.5-9 / 마태 5,17-19.

말씀 길라잡이

남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하나인 바벰바족은 마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면 그를 마을 한복판에 세운 다음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죄지은 사람의 장점, 과거에 했던 선행과 미담을 하나하나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이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새 흐느끼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은 바로 그때 그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같이 울고 위로하며 용서해준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단죄하기보다 진심 어린 뉘우침을 바라는 바벰바족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자의 행위입니다. 믿는 이들이 하느님의 법을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고 고백하는 행위 또한 살리는 자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는 살리는 자의 뜻을 받아 사명을 완성하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며, 예언서 역시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주의에 맞서 율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전통과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고발과 단죄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용서와 화해를 통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율법과 예언서에는 하느님의 뜻이 스며들어 있고 하느님의 사랑이 한 자 한 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머무름

사순 제3주간
목요일

3 / 24

예레 7,23-28 / 루카 11,14-23.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대하는 이들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워하는 사람들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볼거리가 사라지면 떠나는 구경꾼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특별하고 이색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지만 결코 어떤 사건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감각을 채워줄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아 떠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 자처하지만 사사건건 부정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진실에서부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늘 피해 의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전통과 규정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흥정하는 이들로, 많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기복적이라 이편도 저편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자리합니다. 언제나 ‘~ 한다면 할 것이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 놓고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전통과 규정에 싫증을 느끼지만, 조건만 제시하다 안주하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느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편에서는 능력 밖의 일이지만, 하느님의 편에서는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전지전능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머무름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3 /25

이사 7,10-14; 8,10ㄷ / 히브 10,4-10 / 루카 1,26-38.

말씀 길라잡이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서 일어난 주님 탄생 예고는 구원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시작은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전달자의 겸손함과 수락하는 자의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의 첫 인사말은 마리아의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은총이 가득한 이, 하느님의 총애를 받는 이라는 의미에서 이 인사는 마리아의 상태가 죄에 물들지 않은 순결 그 자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며 마리아가 이미 선택된 여인임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의 위로의 말은 마리아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 말에 마리아는 즉시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은 불가능의 의문이 아니라, 어떻게 실현될까 하는 가능성의 의문입니다.

마리아의 물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가능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가능성을 통해 하느님의 강한 구원 의지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마리아는 응답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수락으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앞으로 당신과 하느님의 아들이 감당해야 할 수난에 관한 예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로써,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로서 응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당신의 믿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머무름

사순 제3주간
토요일

3 / 26

호세 6,1-6 / 루카 18,9-14.

말씀 길라잡이

오늘 독서에서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믿음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리이고, 속죄의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예지라는 점을 말입니다. 즉 형식이 아니라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는 성실함과 사랑의 태도 그리고 지금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불성실한 회개에 관하여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자세를 들어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십니다. 이야기는 몹시 간단합니다. 바리사이와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리사이는 외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외국인 아래에서 일하며 그들과 사귀어 부정한 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사이의 기도는 처음부터 스스로 올바른 사람임을 과시합니다. 자애심과 자만심이 넘치는 교만한 마음으로, 결점과 죄악으로 차 있는 세리들과는 달리 자신만이 올바른 사람이라며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신의 위치가 우월하다 여기며 공덕을 자랑하지만, 신심과 사랑의 의무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있던 세리는 눈을 쳐들 용기조차 없이 통회의 표시로 가슴을 치며 하느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범한 온갖 잘못에 대한 어떤 변명도, 어떤 비교도 없이 겸손한 태도와 진실한 뉘우침으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기댑니다.

옳고 잘못된 것에 관한 판단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겸손한 이는 세리입니다. 겸손한 이의 기도에는 간절함과 뉘우침 그리고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 앞에 흠 없는 신심이 있습니다.

머무름

사순 제4주일

3 / 27

여호 5,9ㄱㄴ.10-12 / 2코린 5,17-21 / 루카 15,1-3.11ㄴ-32.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의 핵심은 방탕한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낭비 생활이나 귀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의 중심은 다름 아닌 아버지이십니다. 잃은 이를 구하시는 하느님, 그 잃음을 풍족히 채워 보상해주시는 하느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달라는 아들에게 충고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려 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스르려는 악의도, 내심의 어떤 심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샘솟는 삶, 모험에 대한 야심, 미지의 대상에 대한 야망,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의 그칠 줄 모르는 이 욕망이 스스로를 수렁으로 밀어 넣고 맙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약간의 돈을 소비하고 몇 번의 실패를 맛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색에 빠져 흥청거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돼지를 돌보다가 굶어 죽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무엇을 청하는 것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내치지 않고 용서로 받아주십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잔치를 열어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줍니다.

죄인인 우리는 회개한 죄인을 대하는 하느님의 이러한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여 되돌아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온 죄인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 과거의 모든 일과 죄로 생긴 빚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대해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작은 아들의 회개에 관한 오늘 복음은 죄가 복된 잘못이 되었으며, 나아가 이것이 인간의 구원과 하느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느님의 위대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머무름

사순 제4주간
월요일

3 / 28

이사 65,17-21 / 요한 4,43-54.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의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갈릴래아 사람들의 태도가 궁금해졌습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이 회개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맞아하는 갈릴래아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서 찾아봅니다. '보았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전적인 메시아로 고백하는 흔적은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행위를 통해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정도로만 이해됩니다. 그 이유는 갈릴래아 사람들의 태도가 요한 복음 4장 앞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믿음을 가졌다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겪은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요한 4,42)라며 고백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실 관리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카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간략한 청이지만, 청하는 이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로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의 믿음에 거짓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만약 이 왕실 관리가 갈릴래아 사람들처럼 어떤 표징을 요구했다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믿음을 통해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 희망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머무름

사순 제4주간
화요일

3 / 29

에제 47,1-9.12 / 요한 5,1-16.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은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벳자타' 못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을 전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서른여덟 해나 앓은 사람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앓는 이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의도와, 안식일이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앓는 이의 행동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율법의 규정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과 율법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율법 형식에 맞서서 그 참뜻을 일깨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막연하게 어떤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른여덟 해 동안 앓고 있는 이에게 묻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물음에 그는 '예'라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절망적인 대답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합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하고 명령하십니다. 치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른여덟 해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 말씀의 권위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고 여기며 이를 거부했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지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며 믿고 따랐기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울타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치유되고자 하는 열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된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머무름

사순 제4주간
수요일

3 / 30

이사 49,8-15 / 요한 5,17-30.

말씀 길라잡이

우리는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룰 때 하느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 믿는 이들을 보면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권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당신이 누구에게서 왔고, 왜 왔으며,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느님의 활동이라고 선언한 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칫하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원과 온 목적, 사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신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당신 자신을 부자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왔으며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속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십니다.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사명은 살리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이행의 도구로 자비와 희생을 제시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시간은 내일도 모레도 아닌 지금, 현재입니다. 믿음은 현재 일어나는 사실을 목격하고 고백하는 것이기에 결코 미룰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선행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머무름

사순 제4주간
목요일

3 / 31

탈출 32,7-14 / 요한 5,31-47.

말씀 길라잡이

탈출기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결초보은과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나라 땅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리도 빨리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났을까요? 수많은 표징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라며 고백하는 이들의 나쁜 행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광야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하느님의 표징들을 생각해 보면, 단지 그들이 종살이하는 동안 깊숙이 뿌리내린 이방인의 습관들을 온전히 정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 앞에 닥친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 해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하느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악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 백성과 달리, 모세는 하느님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누구보다 이 백성을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 백성의 이중적인 태도를 진작 경험한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어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을 믿게 하는 증언 네 가지를 나열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하느님의 증언 그리고 성경의 증언과 모세의 증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태 3,11)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도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받은 율법은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다양한 분야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내 안의 증언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머무름

사순 제4주간
금요일

4 / 1

지혜 2,1ㄱ.12-22 / 요한 7,1-2.10.25-30.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다인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갈릴래아에 머무르셨다는 내용과 축제 때 남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을 통해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과연 하느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당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시간을 암시합니다. 결국 지금은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이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서 왔으며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수군거립니다. "최고 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 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예루살렘 주민의 대화에서, 섣부른 판단이 이해를 방해하는 현실을 봅니다.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저 듣는 데에 그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가르침을 받고 깨달으며 마음으로부터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대화는 예수님이 당신 고향에서 들으셨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 기인한 선입견과 굳어진 관점이 신비로움을 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그 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꾸짖음입니다.

머무름

사순 제4주간
토요일

4 / 2

예레 11,18-20 / 요한 7,40-53.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백성들이 술렁거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편이 갈립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 예언자로, 또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갇혀 의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를 구별하는 시작점은 회개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이의 중심에는 남을 경멸하는 못된 버릇과 무지에서 오는 편견과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는 존경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굳어버린 시선과 마음 때문에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을 그 예언자로 또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과,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경비병들 그리고 진리에 갈증을 느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처럼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완고함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서에서 예레미아 예언자는 무지한 적대자들에 맞서 악의 정체를 그대로 폭로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악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위이고 악을 물리치겠다는 결심이며 주님께 의탁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의 것입니다.

복음에서 믿는 자들과 경비병들 그리고 니코데모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침묵하거나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고백함으로써 악한 생활과 결별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무지의 편견이나 생각의 완고함에서 벗어나 악의 정체를 고발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무름

사순 제5주일

4 / 3

이사 43,16-21 / 필리 3,8-14 / 요한 8,1-11.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자 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에 대해 심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 없이 두 번씩이나 침묵 속에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법조문 자체를 읽기보다 법의 내면을 읽으라는 강한 권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신 생각을 확실히 알아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그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갑니다. 그들은 비록 잡혀 온 여인과 같은 죄목은 아니더라도, 저마다 어떤 죄책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과, 심판은 오직 하느님께 맡겨져 있음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느님의 심판은 인간을 죄의 비참함 속에 가두어 모욕과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순수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게끔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결코 용서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극복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용서하십니다. 죄인들에게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편에서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스스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지도 모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립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공동번역 성서」, 필리 3,9).

머무름

사순 제5주간
월요일

4 / 4

다니 13,1-9.15-17.19-30.33-62 / 요한 8,12-20.

말씀 길라잡이

오래 전 저희 공동체에 당뇨로 시력을 잃은 수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수사님이 답답할 것 같아 자주 수사님의 방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사님께서 제게 이제는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무섭고 두렵냐고 물었더니,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불편하기보다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편함은 익숙해지면 해결되지만, 두려움과 무서움은 믿음으로 극복해 내야 하는 것이라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수사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방문을 나서면서 눈을 감고 제 방으로 발길을 옮겨보았습니다. 벽을 더듬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정말 불편함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방까지 다 가지도 못한 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극복해 내야 한다는 수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는 해방인 동시에 희망의 기쁜 소식입니다.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을 통하여 모든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심판이 유효하시다는 말씀은, 빛이 있음에도 옛 악습에 숨어 어둠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둠의 생활 속에 있는 이들은 주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고작 의심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묻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라고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시는 '내가 아무리 나와 나의 아버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머무름

사순 제5주간
화요일

4 / 5

민수 21,4-9 / 요한 8,21-30.

말씀 길라잡이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을 통해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이들에게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당신을 알고 싶으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백성의 악행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이 백성을 살리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이 백성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심판하기보다는 용서를 앞세우십니다. 십자가의 신비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천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예표는 오늘 제1독서에서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의 삶에 불평을 토합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에게 불 뱀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합니다. 불 뱀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의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행해졌으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백성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불 뱀 형상의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즉 그들의 악행을 스스로 보고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죽을 처지에 있는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회개와 결심으로 악과 결탁했던 수많은 시간을 청산하고 돌아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실 것입니다.

머무름

사순 제5주간
수요일

4 / 6

다니 3,14-20.91-92.95 / 요한 8,31-42.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적통을 잇는 자손이라 여기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 가운데 있는 종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치적 자유가 아닌 영적 자유를, 혈연적 관계가 아닌 영적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자유와 영적 관계는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토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로마 4장 참조).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갈라 3,7 참조). 그러나 유다인들은 믿음이 아닌 혈연관계로 응답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형식을 중시하며 사는지 실토하게 된 것입니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표징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써 표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표징을 요구하여 믿음을 소유하려 합니다. 형식적인 틀에 철저히 갇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 진리 편에 서 본 적이 없다"(요한 8,44).

진리 편에 서 본 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탐욕으로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 타협하는 삶에 익숙한 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단 한 번도 자유를 속박당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머무름

사순 제5주간
목요일

4 / 7

창세 17,3-9 / 요한 8,51-59.

말씀 길라잡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 진리 편에 서 본 적이 없다."(요한 8,44)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다인들은 곧바로 반박합니다. 오늘 복음 내용에는 없지만 48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마귀 들린 자라고 칭합니다. 심지어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라며 단정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여 모욕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의 혈통이 이방인과 섞여있다며 그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또,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라고 단정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요, 그분의 말씀은 다 거짓이며 믿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그들의 비뚤어진 생각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똑똑함에서 오는 무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귀를 닫고, 믿음이 아니라 이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만 밝은 형식적인 삶 때문에 그들은 자비의 사랑,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 지혜를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비의 사랑과 겸손의 향기가 없습니다. 믿음과 삶의 경륜으로 얻어지는 지혜의 향기가 없습니다. 이들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계약을 맺으시어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계약의 참뜻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것이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선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비의 사랑, 겸손, 삶의 경륜에서 묻어나는 지혜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완고함에 갇힌 거친 언행과 증오, 단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함에서 비롯된 온갖 세속적인 위험과 형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머무름

사순 제5주간
금요일

4 / 8

예레 20,10-13 / 요한 10,31-42.

말씀 길라잡이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의 일과,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정 관념으로 그 말씀을 반박하며, 급기야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들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이란 지독한 자기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이고,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과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줄곧 그들 앞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적통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박해하고 멸시할까요? 메시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이러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으로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제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우리 마음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의심부터 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잘못되었거나 틀리지 않았다면,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하신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신앙인이라면 '어떤 예수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머무름

사순 제5주간
토요일

4 / 9

에제 37,21ㄴ-28 / 요한 11,45-56.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는 정치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유다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사제 카야파의 제안은 하느님의 뜻과 상반됩니다. "…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 그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대사제 카야파는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카야파의 주장이 정치적이고 이해타산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조차 예수님께서는 흩어져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스스로 대속물이 되라는 하느님의 뜻임을 전합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도 오늘 독서에서 이를 증언합니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 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악과 결탁하고도 그것이 대의라는 논리를 펼치는 카야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를 명분삼아 소의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자주 펼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단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당성을 제시하고 서둘러 문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데도 지식을 근거삼아 자신이 옳다는 주장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내치는데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여쭙는 니코데모의 모습에서 지혜를 청할 줄 아는 참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요한 3장 참조). 니코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청합니다. 진지하게 물으며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니코데모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또 청하는 이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믿음으로 얻어지는 지혜와 슬기의 삶일 것입니다.

머무름

그리스도의 마음

성 보나벤투라

고귀한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영원한 빛의 광채!
생명이신 당신은
온갖 생명에 생기를 주시고
빛이신 당신은
온갖 빛에 광채를 주십니다.

영원하시고 범접할 수 없는 분
죽은 운명으로 태어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찬란하고 감미로운 샘물의 용솟음!
당신의 깊이는 바닥이 없고
당신의 높이는 끝이 없으며
당신의 넓이는 경계가 없고
당신의 순결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도시를 기쁘게 하는
강물이 솟아오르고
사람들이 흥겨워
기쁜 노랫가락에 맞춰
찬미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당신 안에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빛을 봅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4 / 10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 복음 루카 19,28-40.
이사 50,4-7 / 필리 2,6-11 / 루카 22,14-23,56.

말씀 길라잡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당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두 가지 기념 예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생명의 부활을 미리 외치는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비통함으로 주님의 수난을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은 당신이 타고 들어갈 어린 나귀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탄 적 없는 어린 나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화려한 입성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화려한 입성보다는, 길들어져야만 하는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벳파게(덜 익었다)라는 지명이 품고 있는 의미처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덜 성숙한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초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들떠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깝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더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곧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봅니다. 어린 나귀 위에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생각하시는 주님에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쳐졌을까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이 돌변하는 모습은 오늘 수난 복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거친 욕설과 돌팔매질을 서슴지 않으며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죄인조차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라고 말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기대한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도 저들과 닮은 모습은 없는지, 은총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간에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머무름

성주간 월요일

4 / 11

이사 42,1-7 / 요한 12,1-11.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살고 있는 베타니아로 가셔서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때(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당신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 세 인물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제시되는 인물은 마르타입니다. 성경은 마르타에 대하여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보아, 마르타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며 존중과 배려심이 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자로를 통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먼저 경험한 자로써, 다른 이들에게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르타의 행위는 하느님의 때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라자로를 등장시킴으로써,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사건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임을 알려줍니다.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여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죽음과 부활이 식탁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얼마나 화젯거리로 삼고 있나요?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지는 않나요?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행동은 참 신앙인이 하느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전부를 봉헌하고 겸손과 순종을 드러냅니다. 이는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자신의 결점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리아의 봉헌과 겸손과 순종은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의심으로 가득 찬 유다 이스카리옷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은 배려의 따뜻한 마음과 존경 그리고 증거, 봉헌과 겸손 그리고 순종의 자세로 준비되어야 함을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머무름

성주간 화요일

4 / 12

이사 49,1-6 / 요한 13,21ㄴ-33.36-38.

말씀 길라잡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수군거리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묻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며,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적을 보고 따랐던 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이는 결코 먼 곳이 아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주님을 배신하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고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 이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랐던 이들이 주님을 배신할까요? 세상의 것(욕망)과 하느님의 것(포기)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확신 없는 삶에서 결단을 보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확고한 결심과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따르는 이들이 아직은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미약하다는 것을 베드로의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과 줄곧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세상의 것(욕망)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수난과 죽음, 부활)를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한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확고한 결심과 철저한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난과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결심은 나약해지고, 결국에는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무름

성주간 수요일

4 / 13

이사 50,4-9ㄴ / 마태 26,14-25.

말씀 길라잡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신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분이 정말 주님이신가 하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고,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에 사로잡혀 하느님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괴로워하십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때를 알려주었지만 아버지의 뜻보다는 세속적인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신 제자 중 한 사람이 제자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안타까운 모습에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선택한 분의 시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주님이 제시한 길을 의심했을까요? 이 의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적어도 처음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았고, 누구보다 열심이었기에 열두 제자에 뽑혔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 사이에서 신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집단이든 누군가에게 돈주머니를 맡긴다는 것은 그를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하신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예고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메시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타니아에서 목격한 마리아의 행동과 예수님의 대답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요한 12,3).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요한 12,7)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추구한 세상은 믿음과 희망, 사랑으로 세워질 세상이 아닌, 인간적 열정만으로 세워질 세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성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 믿음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이에게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도 무책임하게 보였을 것이고, 마리아의 행동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선택한 것은 악과의 세속적인 흥정이었습니다. 적당한 기회만을 찾고 있는

유다의 모습에서 악과 결탁해 스스로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내달리는 가련한 영혼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면서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여느 제자들처럼 "저는 아니겠지요?"라며 예수님의 뜻과 상반된 자신의 길을 떠나고 맙니다. 만약 그에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배신했어도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머무름

주님 만찬
성목요일

4 / 14

탈출 12,1-8.11-14 / 1코린 11,23-26 / 요한 13,1-15.

말씀 길라잡이

우리는 오늘 저녁 큰 힘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에서는 이 기억의 중요성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탈출기에서는 주 하느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해방(구원)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해방(구원)의 시간은 다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시간임을 강조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는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당신을 기억함으로써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응답, 동행)이 아니라 구원의 전역사(응답, 동행, 수난, 죽음, 부활)를 직접 경험할 때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중심에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중에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지상에서 함께했던 제자들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길이 남을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씻김을 통해 제자들과의 관계를 새로이 합니다. 발 씻김 이전의 관계가 유혹 때문에 언제나 떠날 수 있는 불신의 관계였다면, 발 씻김 이후의 관계는 배신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야만 하는 숙명의 관계가 됩니다.

머무름

주님 수난
성금요일

4 / 15

이사 52,13-53,12 / 히브 4,14-16; 5,7-9 / 요한 18,1-19,42.

말씀 길라잡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시작은 예수님의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를 찾느냐?” 반복되는 이 질문은 당신의 때가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찾는 나자렛 사람 예수가 당신 자신임을 “나다.”라는 표현으로 당당하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에게 닥친 상황을 구차한 변명으로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고 계십니다.

결박당한 채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이 따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잘못을 추궁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숨어서 지켜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망설임 없이 “나는 아니오.”라고 변명합니다. 이 가련한 영혼의 변명이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해야 할 순간을 앗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고백보다는 변명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려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당신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당당함을 지금의 베드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라는 질문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의 은총이 베드로를 따름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빌라도의 호기심은 무관심의 표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수난에 동조한 인물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위로와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 고민했을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일을 처리하듯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울질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정의를 저버리는 한 개인의 나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빌라도의 이와 같은 태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가련한 백성들의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순식간에 돌변해버린 백성들의 외침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 하느님을 원망하며 옛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던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광기만 남았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사제들이 그들의 고정 관념으로 참된 메시아를 부정했다면, 여기서는 감각적인 믿음에 치우쳐 징표만을 요구하고 있는 무리를 봅니다.

팔아넘기려는 자(유다 이스카리옷)와 용기 없는 자(제자들), 고발하는 자(율법학자들과 대사제들)와 호기심에 사로잡힌 자(빌라도) 그리고 징표만을 요구하는 무리(나약한 백성의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도살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에 땅과 하늘이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인간의 악함을 십자가 아래서 목격합니다. 그들의 고개가 잠시만이라도 위를 향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으셔야 할 분이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이 말씀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이 지상에서의 당신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하여 살아왔는지 되돌아봅시다. 의심으로 믿음을 팔아넘긴 자였는지, 두려움 때문에 용기 없는 자였는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발을 일삼는 자였는지, 호기심과 무관심으로 정의를 저버린 자였는지, 감각적인 징표만을 요구하는 기복적 신앙을 가진 자였는지 말입니다. 깊은 성찰을 통하여 삶을 새롭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머무름

파스카 성야

4 / 16

창세 1,1-2,2 / 창세 22,1-18 / 탈출 14,15-15,1ㄱ / 이사 54,5-14 / 이사 55,1-11 바룩 3,9-15.32-4,4 / 에제 36,16-17ㄱ.18-28 / 로마 6,3-11 / 루카 24,1-12.

말씀 길라잡이

자신을 태움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이 거룩한 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아직도 죽음의 어둠에 갇혀 무덤만 바라보며 실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거룩한 밤, 예수님께서는 캄캄했던 수난과 죽음의 길을 승리의 빛으로 밝히십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이 경건한 날의 선포는 모든 믿는 이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안겨줍니다.

거룩한 이 밤에 봉독되는 하느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은 하느님 손길의 오묘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는 매 순간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지극히 만족스러워하십니다.

두 번째 독서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만족스러움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느님 편에서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은 축복받은 이의 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기꺼이 바침으로써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넘으로써 종살이에서 영원히 해방됨을 알려줍니다. 믿는 이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맞닥뜨린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건너감으로써 옛 삶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다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떠남의 여정은 장애물 앞에서 끝나고 맙니다.

네 번째 독서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보살핌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독서는 변치 않는 하느님의 자애가 곧 당신과 맺은 영원한 계약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잘못 들어선 길에서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독서는 이 백성이 불행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니, 지혜와 슬기를 얻으려면 하느님의 말씀과 법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독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선언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는 하느님의 강한 구원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킴으로써 당신이 이 백성과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간의 말씀은 믿는 이들의 삶이 세례를 통하여 죽음에 동참하였으며,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된 이들은 매 순간 하느님을 위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에서는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있었다는 표현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등장한 여인들은 생명으로 열려진 문 앞에서 아직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분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그제야 그들은 주님께서 세 번이나 당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들은 아직도 어두운 밤에 갇혀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머물러있습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하였지만, 부활을 확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놀라워하였을 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아직 죽음이라는 긴 어둠 속에 있다면,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을 통해 죽음의 그늘을 몰아내고 승리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머무름

주님 부활 대축일

4 / 17

사도 10,34ㄱ.37ㄴ-43 / 콜로 3,1-4 / 요한 20,1-9.

말씀 길라잡이

주님의 수난과 죽음이 웅성거림과 소란함 그리고 고함과 울부짖음이 가득했던 혼돈의 시간이었다면, 주님의 부활은 지켜보는 이 없는 고요함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빈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여인은 잃어버린 주님을 찾기 위해 어둠을 헤치며 다급한 걸음으로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를 찾아갑니다. 혹시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모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묻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는 너무 놀랍니다. 여자를 뒤로한 채 무덤으로 내달립니다. 무덤 안을 살펴보지만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둘러보지만, 자신들이 급하게 준비했던 아마포와 수건만 있을 뿐입니다. 그제야 마리아 막달레나가 전해준 말을 믿습니다.

빈 무덤을 나서는 두 제자의 모습이 무겁습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으로 변명만 늘어놓고 뒷걸음치며 도망쳤던 자신들의 죄책감과, 주님의 시신조차 지키지 못한 불성실함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덤을 나섭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시신을 찾는 것조차 포기합니다. 세상의 온갖 근심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희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망이 두 제자를 잡아끌고 갑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 떠났고,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축일에 왜 실의에 빠진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를 등장시켰을까요? 기쁨이 가득해야 할 축제의 시간에,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수난과 죽음은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어둠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음을 전해줍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박차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머무름

2022년 사순 시기 묵상집

돌아섬

발 행 일	2022년 1월 1일
발 행 인	신우식 신부
편 집 인	한지영 수녀
편 집	전도영, 임미숙, 문혜영
발 행 처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 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전 화	02) 2268-7103
팩 스	02) 2268-7104
E-mail	pmsk@pmsk.net
홈페이지	www.pmsk.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pmsk1004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소속의 기구로,
선교 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활동과
사제 양성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선교사들과 기도 안에서 일치하며
이들에게 힘을 보탬으로써 만민 선교에 함께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 회원 가입 문의: 02)2268-7103
• 홈페이지: www.pmsk.net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PMSK